

#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예리함 속에서 느껴지는 따스함

서병기 동문(신영증권 전무·자산운용본부장) 인터뷰

2013년 홍릉 캠퍼스에는 16년 전 KAIST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금융공학 MBA(FE-MBA) 과정을 계승하는 금융공학 석사과정(Master of FE)이 새로이 개설된다. 금융공학 및 계량적 자산운용(Quant)에 특화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금융공학 석사과정 신설을 앞두고, 16년 전 홍릉을 환하게 밝히던 금융공학 MBA 1기 학생들은 금융시장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신영증권의 서병기 동문(금융공학 MBA 1996학번)을 찾았다.

글 이현규 기자

현재 신영증권에서 채권, 주식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부터 외환, AI까지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자산운용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서병기 동문. 그도 16년 전인 1996년 3월에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금융공학 MBA 1기 41명 중의 한 명으로서 홍릉 캠퍼스를 밟았다. 그렇게 입학한 학교는 그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물론 큰 시련도 함께. 석사 생활 2년 동안 공부한 양이 전체 학업기간 동안 공부한 양과 비슷하다며,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는 서병기 동문. 그는 모든 입학생이 회사에 적을 두고 있던 지라, 눈을 뜨면 학교에 와 공부를 시작했고, 밤 10시까지 연구실의 불을 밝혔으며 치열했던 2년의 MBA 과정을 추억 속에서 꺼냈다. 특히 긴 공부 시간의 2/3는 통계와 수학에 투자하면서 힘들게 쫓아갔고, 지금은 교수로 재직중인 변석준 박사의 보충수업이 없었으면 많은 학생이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라며 16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치열한 2년 간의 학업을 마친 1998년, 서병기 동문은 홍릉을 떠나 다시 회사로 복귀했다. 그러나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를 거치며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의 모습은 1996년과는 크게 달라져 있었으며 당시 근무하던 외환은행에서의 담당 업무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복귀한 뒤 채권시장 업무를 맡을 계획이었는데 외환위기 여파로 신설되는 리스크관리팀 설립 멤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리스크 관리 업무를 그 이후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금융시장,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업 종사자 개개인의 삶까지 모든 것을 바

꾸어 놓은 외환위기를 거친 후에 서병기 동문은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외환은행을 나온 뒤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벤처 회사의 대표로 회사를 코스닥에 등록시키기도 했고,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멤버로 참여해서 인력 채용과 투자 시스템 및 프로세스 구축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신영증권으로 옮겨 인사, 기획, 리스크 관리, 준법 감시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를 옮기며 다양한 경험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한 곳에서 확실한 성공 사례를 만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테고, 굳이 좋게 표현하자면 특정 직장이나 직책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나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즐겁게 일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5년에 한번 정도는 Job Market에 나가 본인의 가치를 확인해 보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잦은 이직은 본인의 경력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서병기 동문이 보는 금융공학, Quant의 미래는 어떠할까? “Quant는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정량적 분석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Quant 역량은 금융 종사자에게 당연히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에 기초한 알고리즘 거래 및 가격 모형을 만들고 시뮬레이션하는 전문가 그룹을 Quant라고 본다면 모든 사람이 이 같은



금융업 종사자의 경우  
초기 Junior 시절에는  
‘Know-how’가 중요하지만,  
Senior가 될수록  
‘Know-who’가 중요해진다.



서병기 동문  
신영증권 전무·자산운용본부장

능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복잡해지는 금융시장을 고려할 때 이는 대부분의 금융 회사에 소수 인원일지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내부 육성이나 외부 영입으로 채워야 할 전문 역량입니다.” 그는 초기 활동했던 Quant들이 이제 고위직이 되었고, 그들을 지원할 Junior Quant의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으며 금융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Quant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오랜 기간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서병기 동문은 제대로 위험을 관리했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사실 근래에 많은 금융회사들이 부동산PF, 선박금융, 해외투자 등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도 내부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를 여러 건 검토했지만, 위험과 수익 분석을 통해 수익의 질(Quality of Earning)이나 위험의 종류와 양을 감안하여 기각했고 그 결과 문제가 된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장의 흐름에 휩쓸리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대박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위험 관리를 나름 잘해왔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그는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던져주고 그 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놓고 토론하기를 즐기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후배 동료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도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회사의 전체 자산을 운용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은 서병기 동문은 시장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투자 Platform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데, 시장을 효과적으로 추종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알파 추구 전략을 시험 중에

있다. “앞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꾸준히 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힌 그는 금융업 종사자의 경우 초기 Junior 시절에는 ‘Know-how’가 중요하지만, Senior가 될수록 ‘Know-who’가 중요해진다고 졸업 후에도 제일 소중한 자산인 동문과의 인연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말했다. “이규성 교수님, 김동석 교수님, 지금은 학교를 떠나신 김인준 교수님 등 은사님들과는 지금도 계속 연락을 드리고 뵙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동고동락하던 동문을 역시 자주 만나고 있는데, 특히 여의도에 근무하는 동문들끼리는 한 달에 하루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인 내게는 “16년의 역사를 갖는 금융 MBA 프로그램의 동문을 웬만한 금융회사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크게 다가왔다.

인터뷰 내내 부서의 모든 직원을 동료라고 칭하며 모두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내보인 서병기 동문은 마지막으로 KAIST 경영대학 후배들을 위한 충고 한마디를 부탁하자 ‘호기심과 에너지 레벨’,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교 졸업 후 직업인으로서의 장기적인 성과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세상과 시장에 대한 호기심과 높은 수준의 에너지 레벨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KAIST는 정량적인 분석과 지식 측면에서는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지만, 직업 윤리나 도덕성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인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금융 전문가는 시장 규율과 직업 윤리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기본적인 기본임을 유념해주길 바랍니다.”